

# 우리 나라 정부기관지의 창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김 철 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거대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나라 정부기관지의 창간사업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당출판물들을 수많은 창간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출판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6권 184페이지)

해방후 정부기관지를 창간하는 문제는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앞으로 창건될 인민정권이 자기 기관지를 가지고있어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인민정권의 시책과 결정 등을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널리 해설선전하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인민정권이 자기의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지고있어야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는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무분별한 책동과 악랄한 반공선전을 제때에 짓부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워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로부터 해방후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정부기관지의 창간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출판보도사업의 강화발전예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우리 나라 정부기관지의 창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평양민보》를 발간하도록 이끌어주시여 정부기관지창간의 토대를 마련해주신것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적출판물을 수많은 창간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현실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앞으로 정권기관지로 될 신문을 먼저 창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0월 2일 당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지방합거주의자들이 일제의 어용신문이였던 《매일신문》을 그대로 계속 발간할것을 고집하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매일신문》을 없애고 우리 신문을 하루속히 내올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중앙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새로 나오는 신문을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 기관지로 하고 그것이 중앙신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이 방침의 정당성은 해방직후 혁명적인 신문을 신속히 발간하여 새 조국건설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으며 중앙정부가 수립되면 정부기관지를 곧 내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조직동원하시여 《평양민보》창간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신문창간준비사업에서 걸린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이 《평양민보》창간을 방해하는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도록 하는 한편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기자, 편집원들을 선발배치하도록 하시였으며 신문인쇄는 일제가 경영하던 《매일신문》의 인쇄설비들을 복구정비하여 그곳에서 인쇄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의 전신인 《평양민보》는 수령님께서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다음날인 주체34(1945)년 10월 15일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평양민보》는 첫 창간호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된데 대하여 온 세상에 자랑높이 전하였다.

이날 신문은 제2면에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표제 밑에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기사와 함께 편집하였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평양의 력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특히 대회를 력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것이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림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 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군중에게 준 감동은 강철과 같은것이어서 산야가 떠나갈듯한 환호성가운데 <이 사람과 같이 싸우고 같이 죽으리라>는 사람들의 결의는 눈에 보일듯이 고조되었다.》

기사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명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새 조국건설에 일떠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평양민보》는 자체의 편집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보도선전활동에서 여러가지 경험과 성과들을 축적해나갔으며 그 과정에 신속히 정부기관지로 전환하여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나라 정부기관지의 창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정부기관지를 창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신문을 신속히 창간하도록 해주신것이다.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의 창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2월 25일 멀지 않아 우리는 민주주의적립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정부기관지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민보》를 계속 발간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확대하여 정식 정부기관지로 만들데 대하여 밝히주시었다.

해방직후 신문을 새로 하나 내온다는것은 참으로 어렵고 곤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신문을 편집하고 발간할만 한 준비된 일꾼들과 인쇄기술자들이 부족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의 악독한 후파로 말미암아 인쇄설비는 극히 략후하였으며 그것마저 일제가 패망하면서 모조리 파괴하였다.

한편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정부기관지창간문제가 제기되자 《시기상조론》을 들고나오면서 신문창간사업을 이모저모로 방해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정부기관지창간을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준비사업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을 평양민보사에 파견하시였다. 그들은 신문사일꾼들과 함께 정부기관지창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실정은 예견하였던것보다 더 어렵고 곤란하였다. 일제가 파괴하고 간 인쇄설비는 그 어느것이나 성한것이 없고 조선말활자도 매우 부족하였다. 낡은 설비들을 모아다 새롭게 개조도 해보고 목각활자도 만들어보았지만 일은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주체35(1946)년 3월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부기관지창간준비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는 정부기관지를 창간하는 사업이 곧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금 반동들과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가 혁명적출판물을 가지는것을 총이나 대포를 가지는것보다 더 무서워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난관앞에서 주저할것이 아니라 맞받아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방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지시를 주시여 신문발간에서 걸린 문제의 하나였던 인쇄설비를 구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신문제호를 만드는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부 일꾼들이 신문의 제호를 《로동신문》이나 《조선민보》, 《민족시보》로 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을 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민주조선건설을 당면과업으로 하고있는것만큼 《민주조선》으로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신문이 인민들을 인민정권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새 민주조선건설에 힘차게 조직동원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신문제호에는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 인민들의 진정한 념원과 지향 등이 뚜렷이 명시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35(1946)년 6월초에 신문발간을 위한 준비를 완전히 갖추게 되였다.

우리 나라 정부기관지의 창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민주조선》의 사명과 임무를 명백히 밝혀주시여 신문이 정부기관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신것이다.

해당 신문의 사명과 임무를 똑똑히 밝히는것은 신문이 옳은 편집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신문의 고유한 특색도 살려 전반적신문 보도체계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주조선》의 창간에 즈음하여 친히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신문의 사명과 임무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6월 2일 정부기관지창간준비사업을 완전히 끝냈다는것을 료해하시고 《민주조선》은 기관지인것만큼 축하문을 보내주자고 하시면서 몸소 밤을 지새우시며 《민주조선》창간호에 실을 축하문을 집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드디어 주체35(1946)년 6월 4일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친필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실은 정부기관지 창간호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조선》창간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 《신문 <민주조선>은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올바른 지침이 되라》에서 《민주조선》의 사명과 임무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었다.

축하문에는 《민주조선》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복무하며 우리 인민을 민주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건국사업으로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다할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졌다.

이와 함께 《민주조선》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참다운 벗이 되고 참다운 스승이 되며 인민대중의 생활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당히 해결해 주기 위해 힘쓰며 인민들의 사상과 감정을 민주주의적방향으로 이끄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데 대하여 그리고 모든 반민주주의적이며 반민족적인 반동세력과 반동선전을 짓부시는 강력한 무기로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민주조선》의 창간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다.

그 의의는 첫째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가 마련되었다는데 있다.

정부기관지가 창간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그 의의는 둘째로, 당과 정부의 위력한 대변지를 가지게 되었다는데 있다.

정부기관지가 창간됨으로써 우리 당과 정부는 당기관지와 함께 자기의 위력한 대변지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내외에 널리 천명할수 있게 되었다.

그 의의는 셋째로, 우리 나라 신문보도체계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다.

《민주조선》이 정부기관지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신문보도체계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

오늘 정부기관지는 정권건설문제, 경제문제를 많이 취급함으로써 자기의 특색을 적극 살리고 전반적인 신문보도선전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부기관지창간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